

경북도,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예타선정

동서3축 단절구간 연결기반 마련
7兆 들여 왕복 4차로 86.7km 신설
세 차례 추진시도에도 번번이 무산
전북도·무주군과 경제성 확보 힘써

경북도는 영호남을 잇는 지역 숙원 사업인 무주~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10월 31일 기획재정부 제 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동서3축(김제~포항)의 유일한 단절 구간을 연결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도로망 동서3축 고속도로는 전북 김제시에서 경북 포항시까지 총연장 291.7km를 잇는 노선으로, 이 가운데 대구~포항(2004년 개통), 전주~무주(2007년 개통) 구간은 이미 운행 중이며, 올해 11월에는 김제 새만금~전주 구간도 개통될 예정이다.

이번에 예타 대상에 오른 무주~성주~대구 구간은 동서3축의 유일한 미완



성 구간으로, 왕복 4차로 86.7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조 원 규모로, 무주군(통영대전 고속도로)에서 시작해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을 거쳐 대구시(경부고속도로)에 연결된다.

이 구간은 1999년, 2010년, 2017년(성주~대구 구간) 등 세 차례 추진이 시도됐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번번이 무산돼 오랫동안 답보 상태였다. 이에

경북도는 전북도·무주군과 협력해 추가 교통수요 발굴, 지역 낙후도 반영 등 경제성 확보에 힘쓰며 예타 대상 재도전에 나섰고, 이번에 성과를 거두게 됐다.

현재 영호남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남해선과 광주대구선 2개 노선뿐이며, 두 노선 모두 남부권 위주로 연결돼 있다. 무주~성주~대구 고속도

로가 개통되면 전북과 대구·경북 등 영호남 중·북부를 직접 잇게 돼 영호남 화합 촉진과 함께 무주·김천·성주 등 낙후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992년 국가간선도로망 수립 이후 장기간 미구축된 동서3축을 완성해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을 잇는 경제·교통·물류 중심축을 형성하게 된다. 아울러 경북 서·남부권과 호남 동부권의 항공 수요를 흡수해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 향상과 수요 확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국토 균형 발전은 물론 대구경북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영호남이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예타를 통과해 이번 기회를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창원시, ‘C-블루윙 펀드’ 5호 추가조성

총 186억 규모로 조성
기술 창업 기업 잠재력 ↑

창원특례시는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환경 조성과 선순환 투자 생태계 마련을 위해 ‘C-블루윙 펀드’ 5호를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C-블루윙 펀드는 창원(Changwon)의 첫 글자 C와 창원의 젊은 생기를 의미하는 블루(Blue), 날개를 뜻하는 윙(Wing)을 합성한 시·고유 펀드 명칭이다. 창원 산업에 날개를 달아 생동감을 불어넣으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총 186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C-블루윙 펀드 5호 ‘경남-나우 경남지역혁신 투자조합’은 경남 지역 전략 산업인 우주·항공 첨단방위, 친환경 스마트조선 분야와 경남 지역 미래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AI·ICT융합산업, 첨단제조 분야 기업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한다. 창원시 소재 초기 유망 스타트업에는 창원시 출자금 10억원의 2배인 2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3년에 걸쳐 10억원을 출자한다. 경남벤처투자자와 나우아이비캐피탈이 공동으로 운용을 맡아 전문성을 강화한다. 안정적인 투자 자금을 통해 장기적인 투자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시는 C-블루윙 펀드 5호가 기술 창업 기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망 기업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는 C-블루윙 펀드 1호 ‘인라이트 9호 넥스트 유니콘 벤처펀드’ 220억원, 2호 ‘차세대 지역뉴딜&바이오 펀드’ 200억원, 3호 ‘연구 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606억원, 4호 ‘다이콘 스타트업 투자조합’ 30억원 등 총 1056억원을 조성해 14개 기업에 11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5개 사의 창원 이전을 이끌어낸 바 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해남미남축제 개막식.

/해남군

‘해남미남축제’서 특산물 맛·멋 선포

사흘간 24만3000여명 방문

2025 해남미남축제가 땅끝해남의 맛과 멋을 유감없이 선보이며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가을빛이 물들어가는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화창한 가을 날씨속에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간 연인원 24만 3000여명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남미남축제는 쌀과 배추, 고구마, 김 등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해남 명품 농수특산물과 이를 활용한 맛있는 먹거리를 주제로 열리는 축제에 매년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평일임에도 오전부터 인파가 몰리기 시작한 31일에는 해남 14개 주민들이 참여한 읍면별 특산물 뽐내기 퍼레이드와 해남8미(八味) 선포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된 개막식과 미남트롯축하쇼가 열려 관람객들의 열띤 환호를 받았다.

특히 관광객 등 250명이 참여해 해남 515개 마을을 상징하는 해남배추로 김치만들기를 체험하는 ‘515 김치 비빔’과 해남쌀과 김으로 만든 ‘2025 떡국 나눔’은 해남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더욱 널리 알리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내일부터 ‘부산국제수산물엑스포’ 진행

오는 7일까지… 29개국 참여

부산시는 국내 최대 수산 전문 전시회인 ‘제23회 부산국제수산물엑스포’(BISFE 2025)를 오는 5~7일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벡스코·한국수산물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29개국 460개사 1200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특히 에콰도르, 그리스, 튀니지 등 7개국이 새롭게 참가한다.

또 해외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대·중소기업 매칭데이,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 등 업체 간 교류 중심의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참가기업의 실질

적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도 마련된다.

개막식은 오는 5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전시행사에서는 ▲수산식품관 ▲수산기자재 및 스마트양식관 ▲창업투자지원관 ▲특별관 등이 운영돼 수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학술행사로는 부산수산정책포럼과 한국수산물과학총연합회 국제학술대회 등이 열려 수산산업의 정책 방향과 기술 발전을 논의하는 전문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글로벌 네트워킹 리셉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시교육청,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개교

에코델타시티 신설, 신연초 재개교

부산시교육청은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으로 학령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내년 3월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1곳, 특수학교 1곳이 문을 연다고 밝혔다.

또 학교 인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학생수가 급감해 2년간 임시휴교에 들어간 남구신연초등학교가 재개발지역 입주 시기에 맞춰 내년 3월 다시 개교한다. 신설·재개교 과정을 통해 부산에서는 내년 3월 5곳의 학교가 새로 문을 여는 것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오전

교육청회의실에서 신설·재개교하는 유치원·학교 교장에 대한 사무 취급 겸임발령을 내고 개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 3월 개교하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내 학교는 15학급 규모의 에코4유치원과 12학급 규모의 에코8유치원, 31학급 규모의 에코4초등학교, 31학급 규모의 에코특수학교 등 4곳이다.

재개교하는 남구 우암동 신연초는 인근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2024년 3월부터 휴교에 들어갔으며 휴교 후 주택재개발사업 완료와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 문을 다시 여는 것은 부산 최초의 사례다.

/부산=이도식 기자

지역 이모저모



주낙영 경주시장이 홍콩 존 리 행정수반에게 중앙시장 내 상점가를 안내하며 전통시장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경주시

존 리 홍콩행정수반과 시장 방문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존 리(John Lee) 홍콩 행정수반이 2일 중앙시장 오일장을 찾아 한국 전통시장의 활력과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공식 일정이 아닌, 한국 전통시장 문화를 몸소 느끼고 K-컬처의 현장을 경험하기 위한 민간 교류 차원에서 추진됐다.

존 리 행정수반 일행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활기찬 상가재 현장을 살피고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한편,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지역관광 연계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경남도

베트남서 ‘K-Food 팝업’ 열어

경남도는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롯데몰 서호점에서 ‘2025년 베트남-경남 K-Food 팝업 스토어’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팝업은 경남도가 주최하는 첫 대규모 해외 농식품 팝업 스토어형 마케팅 행사다. 단순 홍보가 아닌 현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경남도는 도비 1억 1800만 원을 투입해 농식품 기업의 현지 시장 테스트와 판매 활로 개척을 돕는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부산시립박물관

박물관 어울림 교육한마당

부산 지역 16개 박물관·미술관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들에게 특색 있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부산시립박물관은 오는 8일 박물관 야외 마당에서 ‘2025 박물관 어울림 교육한마당’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박물관협회 소속 기관들이 참여해 각 박물관의 특색 있는 교육·문화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자리다. 2009년부터 시작돼 부산 지역 박물관·미술관을 알리는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진주시

‘경남진주 혁신도시의 날’ 행사

경남 진주시는 3일~9일까지 충무공동 혁신도시 일원에서 ‘2025 경남진주 혁신도시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 이전 10주년을 기념하고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 상생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3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강당에서 기념식이 열린다. 4일에는 이성자미술관 옆 광장에서 홍보·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